

■ 특기고 ■

王訪山과 王方山

왕방산(王方山)은 분지 형태의 포천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포천의 진산이다. 이 왕방산의 이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전해오는 유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고 아직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산이 왕방산으로 불리어진 몇 가지 유래를 찾아보면 첫째, 신라 헌강왕 3년(872년) 도선국사가 이산에 머물고 있을 때 국왕이 친히 행차하여 격려하였다 하여 산 이름을 왕방산이라 하고, 그 절을 왕방사라 했다는 설이 있다.

둘째, 왕위에서 물러난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왕자들과 골육상쟁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산의 왕방사(지금의 왕산사)에 며칠 동안 머물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당시 태조가 국수를 먹었다 하여 국수봉(現국사봉)이라 했고, 호위병들이 아영을 한 마을이라 하여 호병골이라 불렀다 설도 전한다.

세 번째는 고려 말 목은 이색이 세속을 떠나 이 산중에 들어와 삼신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은신했다 하여 국사봉(國師峰)이라 했는데 왕이 한상 목은을 생각하며 이 산을 바라보았다 하여 왕방산으로 변했다는 설도 전한다.

그러나 포천군지와 견성지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 산에서 무예를 익히고 사냥을 했으며, 왕위에 오른 후에도 단오와 추석에 강무(임금이 참관하는 무예시합)를 했다 하여 왕방산이라 부르게 됐다

는 기록도 있다. 한편으로는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함흥에 살다가 한양으로 돌아오던 중 왕자의 난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을 달래고자 이 산을 찾았다는 다른 유래도 전해진다.

왕방산과 연관된 지명으로는 왕숙현(왕이 자고 갔다), 팔이리(조선태조가 한양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덟 밤을 지낸 마을), 대궐터(왕의 행궁이 있었던 곳) 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유래를 갖고 있는 왕방산의 한자표기를 일제시대에는 산 이름의 첫 자인 왕자(王)에 날(日)자를 붙여 旺자로 바꿔 표기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王자로 돌려놓았다. 서울에 있는 인왕산(仁王山)과 같은 경우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꿀 때 많은 자료를 참고했지만 우리가 조선왕조실록과 대동여지도에 실려 있는 기록에는 왕방산의 가운데 글자가 訪가 아니고 方로 표기되어 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신라하고 인정하는 기록문화인 왕조실록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라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기록으로 마추어보아 포천의 진산인 왕방산의 올바른 이름은 王方山이고 그 올바른 이름을 찾아주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시작일 것이라는 생각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각 마을별로 표시한 지명표지판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올바른 이름을 찾아 사용하는 것이 우리자신을 찾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실천에 옮기기를 바란다.

그런데 가운데자인 방자가 기록을 보면 訪자가 아니고, 方

표기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이나 대동여지도에 여러번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좀더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실록에 나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때 4번 기록
태종 27권,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28일 임신 1번째기사

해룡산(海龍山)과 왕방산(王方山)에서 물이하였다. 임금이 사슴 3마리와 노루 1마리를 쏘았다. ○壬申/駕海龍山及王方山, 上射鹿三獐一

세조때 4번 기록
世宗 11卷, 3年(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3月 29日 辛卯 1번째기사

상왕이 임금과 함께 포천·영평 등지에 거둥하였는데, 효령대군 이보·경녕군 이비·영의정 유정현·좌의정 박은·우의정 이원 등 26인이 행차에 수행하고, 갑사(甲士) 5백 명과 대장·부대장과 별군(別軍)·보병 2천 명이 짐승을 몰이하게 하였다. 상왕이 왕방산(王方山) 아래에서 노루를 쏘고, 또 삼곡(深谷) 남쪽 산 아래에서 사슴을 쏘았다. 저녁에 영평현 강시(江時)의 들에 머물렀다. ○辛卯/上王與上幸衛川,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성종 때 2번 기록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대가(大駕)가 왕방산(王方山) 사장(身場)에 이르자, 종제(宗宰) 능에게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려라. ○辛酉/大駕至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세조때 5번 기록
세조 18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10월 13일 신유 1번째기사



이희용
포천역사 대표

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사냥하여 잡은 돼지와 주악(酒樂)을 서울에 남아 있는 장상(尙相)에게 내려 주었다. 임금이 대장소 종사관(大將所從事官) 권절(權節)에게 명하여 우상(右相)으로 하여금 왕방산(王方山)에 집을 짓도록 했는데, 권절(權節)이 즉시 명령을 전달하지 아니하여서 우상(右相)으로 하여금 좌상(左相)과 더불어 나란히 집을 짓게 했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권절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게 하였다. 저녁에 포천(柳川) 안 거역(安驛驛)의 앞 들에 머물렀다.

○辛酉/觀獵于柳川, 賜獵獲猪及酒樂于留都將相, 命大將所從事官權節令右相率于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대가(大駕)가 왕방산(王方山) 사장(身場)에 이르자, 종제(宗宰) 능에게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려라. ○辛酉/大駕至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대가(大駕)가 왕방산(王方山) 사장(身場)에 이르자, 종제(宗宰) 능에게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려라. ○辛酉/大駕至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대가(大駕)가 왕방산(王方山) 사장(身場)에 이르자, 종제(宗宰) 능에게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려라. ○辛酉/大駕至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대가(大駕)가 왕방산(王方山) 사장(身場)에 이르자, 종제(宗宰) 능에게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려라. ○辛酉/大駕至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대가(大駕)가 왕방산(王方山) 사장(身場)에 이르자, 종제(宗宰) 능에게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려라. ○辛酉/大駕至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대가(大駕)가 왕방산(王方山) 사장(身場)에 이르자, 종제(宗宰) 능에게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려라. ○辛酉/大駕至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대가(大駕)가 왕방산(王方山) 사장(身場)에 이르자, 종제(宗宰) 능에게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려라. ○辛酉/大駕至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대가(大駕)가 왕방산(王方山) 사장(身場)에 이르자, 종제(宗宰) 능에게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려라. ○辛酉/大駕至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대가(大駕)가 왕방산(王方山) 사장(身場)에 이르자, 종제(宗宰) 능에게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려라. ○辛酉/大駕至王方山, 節不即宣傳, 使右相與左相連車, 命下節于義禁府, 夕次于柳川安驛驛前

韓國의 선비정신 · 73

김우항(金宇杭) ...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김우항(金宇杭)이 휘릉별감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휘릉에 있는 능참봉은 안중에 살던 권씨였는데, 그는 나이 50에 이르러 그의 집의 형세는 낙담하였으나 불행히 흠이비로 의롭게 지내는 터였다.

하루는 마침 김우항과 함께 능을 지키며 번을 들고 있는데 야밤에 능 안에서 나무를 베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깜짝 놀란 능참봉과 김우항은 삼금삼금 밖으로 나와서 그 도발을 하는 도둑을 잡았다.

“이놈! 너는 어떤 놈인데 감히 능 안의 나무를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무덤할 수 있는가?”

이렇게 호령하고 불을 밝혀 보니, 그 나무 도둑의 모습은 불과 20을 넘을까 말까 한 젊은 자로 눈에 당장 곤장으로 벌을 내리라는 젊은이 두 명이 나타나서 그 젊은이를 붙잡고 갔다.

“고약한 놈, 당장에 불을 사서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먹이도록 하라.” 김우항은 빼앗겼던 도끼와 낫을 도로 주고 돈까지 주었다. 이어서, “다시는 이따위 나쁜 짓을 말라!” 하고 다짐을 하니, 젊은 도둑은 또다시 허리를 굽살거리면서 돌아갔다.

이러한 일이 있는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다시 번을 들게 되었는데, 도둑이 또 들어와서 나무를 훔쳐가려는 것이었다. 참봉과 김우항이 도둑을 잡고 보니, 역시 그 젊은이가 아닌가?

이것을 본 참봉은 크게 노하여, “이놈아! 전에 그렇게 일했는데, 또 이따위 짓을 하였으니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무겁게 호통을 치고 나서 젊은 도둑을 큰 방에다 가두고 다음날 벌을 크게 주기로 정하였다.

참봉과 김우항은 도둑을 가둔

가없는 인생이니 이번만은 특히 용서하여 주는 것이 어떨고? 나무를 가져간 것도 아니니, 다시 또 하거든 그때에는 용서마세.” 이렇게 김우항에게 찬물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김우항도 정상이 눈물겨워, “이번만은 특히 죄를 사하여 주죠.” 이렇게 말하고는 젊은 도둑에게 말하기를, “너의 말을 들으니 정상이 가없구나. 이 돈을 줄 것이니 쌀을 사서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먹이도록 하라.” 김우항은 빼앗겼던 도끼와 낫을 도로 주고 돈까지 주었다. 이어서, “다시는 이따위 나쁜 짓을 말라!” 하고 다짐을 하니, 젊은 도둑은 또다시 허리를 굽살거리면서 돌아갔다.

이러한 일이 있는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다시 번을 들게 되었는데, 도둑이 또 들어와서 나무를 훔쳐가려는 것이었다. 참봉과 김우항이 도둑을 잡고 보니, 역시 그 젊은이가 아닌가?

이것을 본 참봉은 크게 노하여, “이놈아! 전에 그렇게 일했는데, 또 이따위 짓을 하였으니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무겁게 호통을 치고 나서 젊은 도둑을 큰 방에다 가두고 다음날 벌을 크게 주기로 정하였다.

참봉과 김우항은 도둑을 가둔

옆방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주고 받는 중에, 김우항이 이야기를 꺼내기를, “여보 참봉님! 나리는 지금 늙지도 젊지도 않은 터에 부인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뜻있이 아내가 없는 것은, 마치 집에 들보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였소. 저 나무 도둑의 행색을 보니 상사같은 아닌 것 같소. 그리고 그의 누이동생도 과년하다 하니 어떠시오? 만일 재취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내가 중매를 서으리다. 어떠시오?”

이렇게 권참봉의 뜻을 떠받쳐 다. 이 말을 들은 권참봉은 한참 동안 생각해 잠잠다가 입을 열었다. “젊은 바는 아니니,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 늙었다고 싫어하지 않겠소?” 권참봉이 염려를 한다.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염려 마시오.” 김우항이 말을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그 젊은이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두 번씩이나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너의 정상을 생각하며 매우 불쌍하여 우리 들이 의논한 결과 특별히 놓아주는 것이다.”

이런 말로 방면할 것을 알린 다음에, “그리고 들으니 당혹한 누이동생이 있다 들었다. 마침 여기 권참봉 나리가 상치를 하고 홀로 사는데, 그의 형편이 낙담하고, 또 힘도 아직 강하니 서로 혼인을 한다면, 너의 권술이 오래 의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양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김우항 발간이 관하니, 젊은 도둑은 대답하기를 늙은 어머니에게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고 나가려는데 권참봉이 또 돈을 내 주었다. <계속>

미국인들이 사랑한 작곡가 콜 포터(Cole Porter)

미국인들이 사랑한 작곡가 콜 포터(Cole Porter)

경제공황이 한창이던 1930년대에 브로드웨이를 지켜주었던 많은 작곡가들 중에서 콜 포터(Cole Porter, 1891~1964)는 특히 미국인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가장 미국적인 감각을 가진 작곡가였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전쟁에도 참여한 아이비리그(Ivy League) 출신. 부유한 여자와 결혼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상류층 남자. 비록 결혼은 했지만 지나칠 정도로 끝없는 동성연애의 탐닉, 낙마 사고로 인해 30번 이상의 다리수술,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식을 줄 모르는 남자를 향한 애정행각, 결국 다리 하나를 절단하며 만년을 우울하게 보내야 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작곡가. 대표작으로 <애니싱 고즈(Anything Goes, 1934)>와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를 토대로 만든 <키스 미 케이트(Kiss Me, Kate, 1948)> 등이 있지만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비록 2002년에 <키스 미 케이트(Kiss Me, Kate)>가 엄청난 홍보와 기획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소개되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대표곡인 '나이트 앤 데이(Night and Day)'와 '애니싱 고즈(Anything Goes)'가 그의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6살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8살에 피아노를 그리고 10살에 첫 오페레타를 썼다고 하는데 비록 엄마의 도움으로 쓴 작품이긴 했지만 그의 재능이 드러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예일대학을 거쳐 하버드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기도 했던 포터는 자신의 예술적인 천성을 좇아 음대로 전과를 하여 결국 브로드웨이로 진출하게 되었다. 포터는 이미 예일대학 시절 300여곡이 넘는 음악을 작곡했다고 하는데 미식축구팀을 위해 작곡했던 노래들이 아직도 예일대학에서 애창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브로드웨이 첫 데뷔는 1915년에 <핸즈 업(Hands Up)>이라는 레뷰를 위해 작곡한 '에스메랄다(Esmeralda)'라는 곡이었다. 커다란 성공을 거뒀지만 이후 계속된 실패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지취를 감추었다. 많은 미국의 평론가들은 당시를 회고하며 연이은 작품의 실패로 인해 포터가 스스로를 파리로 유배 보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역시 미국인이 좋아하는 작곡가에 대한 애정 어린 표현처럼 보인다. 포터의 파리에서의 생활은 유배보다는 오히려 초호화한 생활의 극치였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브로드웨이를 떠나 프랑스로 건너간 포터는 1918년 파리에서 부유한 연상의 이혼녀 린다(Linda, Lee Thomas)와 결혼식을 올린다. 이후 1920년대 대부분을 유럽에서 보내며 호

화로운 생활을 즐겼는데 그런 호화롭고 꿈같은 결혼생활의 이면에는 이미 많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성연애자였던 포터와 연상의 여인 린다와의 결혼식은 포터의 인생에 있어서 여자에게 관심을 가진 마지막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다. 포터는 결혼 이후 자유분방한 자신의 삶에 여정을 거침없이 시작했다. 1920년대 말에 <파리(Paris, 1928)>라는 작품으로 브로드웨이에 돌아온 이후 남자들에게 대한 포터의 애정행각이 노골적이 되었고 1930년대의 다른 작곡가들처럼 할리우드에 정착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포터의 남성연애는 극에 달했다.

콜 포터의 음악적인 특성은 매우 정교한 리듬과 복잡한 형식에 있는데 때때로 음란한 가사들을 사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지만 많은 미국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영화 속에서 그의 작품들은 더 풍부한 이미지를 기교를 자랑하고 있다. <로잘리(Rosalie, 1937)> (브로드웨이 멜로디 1940 (Broadway Melody Of 1940, 1939)) <실크 스타킹(Silk Stockings, 1955)> 등의 뮤지컬 영화에서 포터의 음악이 들어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 개인적으로 평가해 볼 때 콜 포터의 음악은 1930년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리처드 로저스나 어빙 벌린 그리고

조지 거쉬인 만큼 가슴을 울리지는 않는다. 콜 포터의 작품이나 음악이 국내에 거의 소개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뮤지컬 역사에 있어서 콜 포터는 위대한 뮤지컬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4년에 콜 포터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 영화가 개봉되었다. 포터 자신의 노래를 제목으로 한 <드 러블리(De-Lovely)>는 그의 아내 린다의 포터에 대한 사랑과 포터의 동성애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린다는 개인적으로 포터의 열렬한 팬이었고, 최고의 후원자였으며 포터가 최고의 작곡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한 여신과도 같은 여인이었다. 포터의 동성애적 사랑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린다의 아가페적 사랑과 포터의 생애를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구조 속에서 잔잔하게 그려내는데, 발이 거의 2교(鼓)가 되었던 개봉되지 않았으며 단지 DVD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명작은 아니지만 콜 포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이다.

콜 포터의 음악적인 특성은 매우 정교한 리듬과 복잡한 형식에 있는데 때때로 음란한 가사들을 사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지만 많은 미국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영화 속에서 그의 작품들은 더 풍부한 이미지를 기교를 자랑하고 있다. <로잘리(Rosalie, 1937)> (브로드웨이 멜로디 1940 (Broadway Melody Of 1940, 1939)) <실크 스타킹(Silk Stockings, 1955)> 등의 뮤지컬 영화에서 포터의 음악이 들어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 개인적으로 평가해 볼 때 콜 포터의 음악은 1930년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리처드 로저스나 어빙 벌린 그리고

조지 거쉬인 만큼 가슴을 울리지는 않는다. 콜 포터의 작품이나 음악이 국내에 거의 소개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뮤지컬 역사에 있어서 콜 포터는 위대한 뮤지컬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4년에 콜 포터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 영화가 개봉되었다. 포터 자신의 노래를 제목으로 한 <드 러블리(De-Lovely)>는 그의 아내 린다의 포터에 대한 사랑과 포터의 동성애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린다는 개인적으로 포터의 열렬한 팬이었고, 최고의 후원자였으며 포터가 최고의 작곡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한 여신과도 같은 여인이었다. 포터의 동성애적 사랑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린다의 아가페적 사랑과 포터의 생애를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구조 속에서 잔잔하게 그려내는데, 발이 거의 2교(鼓)가 되었던 개봉되지 않았으며 단지 DVD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명작은 아니지만 콜 포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이다.

조지 거쉬인 만큼 가슴을 울리지는 않는다. 콜 포터의 작품이나 음악이 국내에 거의 소개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뮤지컬 역사에 있어서 콜 포터는 위대한 뮤지컬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4년에 콜 포터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 영화가 개봉되었다. 포터 자신의 노래를 제목으로 한 <드 러블리(De-Lovely)>는 그의 아내 린다의 포터에 대한 사랑과 포터의 동성애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린다는 개인적으로 포터의 열렬한 팬이었고, 최고의 후원자였으며 포터가 최고의 작곡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한 여신과도 같은 여인이었다. 포터의 동성애적 사랑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린다의 아가페적 사랑과 포터의 생애를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구조 속에서 잔잔하게 그려내는데, 발이 거의 2교(鼓)가 되었던 개봉되지 않았으며 단지 DVD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명작은 아니지만 콜 포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이다.

조지 거쉬인 만큼 가슴을 울리지는 않는다. 콜 포터의 작품이나 음악이 국내에 거의 소개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뮤지컬 역사에 있어서 콜 포터는 위대한 뮤지컬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4년에 콜 포터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 영화가 개봉되었다. 포터 자신의 노래를 제목으로 한 <드 러블리(De-Lovely)>는 그의 아내 린다의 포터에 대한 사랑과 포터의 동성애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린다는 개인적으로 포터의 열렬한 팬이었고, 최고의 후원자였으며 포터가 최고의 작곡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한 여신과도 같은 여인이었다. 포터의 동성애적 사랑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린다의 아가페적 사랑과 포터의 생애를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구조 속에서 잔잔하게 그려내는데, 발이 거의 2교(鼓)가 되었던 개봉되지 않았으며 단지 DVD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명작은 아니지만 콜 포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이다.

조지 거쉬인 만큼 가슴을 울리지는 않는다. 콜 포터의 작품이나 음악이 국내에 거의 소개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뮤지컬 역사에 있어서 콜 포터는 위대한 뮤지컬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4년에 콜 포터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 영화가 개봉되었다. 포터 자신의 노래를 제목으로 한 <드 러블리(De-Lovely)>는 그의 아내 린다의 포터에 대한 사랑과 포터의 동성애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린다는 개인적으로 포터의 열렬한 팬이었고, 최고의 후원자였으며 포터가 최고의 작곡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한 여신과도 같은 여인이었다. 포터의 동성애적 사랑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린다의 아가페적 사랑과 포터의 생애를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구조 속에서 잔잔하게 그려내는데, 발이 거의 2교(鼓)가 되었던 개봉되지 않았으며 단지 DVD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명작은 아니지만 콜 포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이다.



수필가 김경웅의 <포천 이야기> (207)

선정(善政)을 베푼 '원님'들

포천 고을의 선정(善政)을 베푼 고을 원님들 몇 분의 공적을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첫 손에 꼽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토정(土亭)'선생이다.

호가 말하듯이 토정은 실제로 한강기에서 거적집을 짓고 흙담을 쌓고 거적같이 싹새 요즈음 말로 노숙자(路宿者)들의 구제책을 건의했던 인물이다.

한탕강 흡수를 예언한바도 있는 인물로 아산의 인산서원, 보령의 화암서원에 배향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정종12~선조11년)

이성규(李聖圭) 원님은 관관경 부사로 부임하여 반월산성(半月山城)을 수축하였고 백사(白沙)

선생의 화산서원을 세운일이다. 이로 말미암아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오늘의 화산서원이 있게한 인물로 유명하다. 지금의 가산면의 옛 이름이 화산(火山)이다. (선조17~인조22년)님의 관직도 화려하여 병조, 이조, 판서를 역임하고, 삼정승을 거쳐 영종추부사(領中樞府事)를 지냈다. 시호는 정숙(正肅)이다.

그 밖에도 이현(선조17~인조15년)의 선정비가 있는데 문과로 급제한 인물로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 온 외교관이 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으로 포천 현감 재임시 선치(善治)를 하여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한다. 류득공(柳得恭)은 영조때 인

물로 포천현감을 지냈는데 실학파이자 영평전 냇가에서 풍류를 즐기며 세월을 누웠던 이서구(李書九) 양문대감, 박제가, 이덕무 등과 함께 한시 4대가로 알려졌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과 한문이다. 문명(文名)이 높아 동양의 문봉(東洋之文鳳)이라 칭사(稱詞)한다. 지난 번 본란을 통해 소개된 흥태운(洪泰潤)은 고종때 인물로 영평현감, 양주목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또, 홍명원(洪命元:선조6~인조1년)이 있는데 경기관찰사 까지 승차한 시와 문장에 뛰어난 인물로 해봉집(海鳳集)을 남겼다. 원만한 인물로 고을을 다스렸던 원님은 정광성(鄭光成:선조9~효종5년)님이 있

초대 漢詩 回顧祖國光復(회고조국광복)



楊 載 昌
전 포천향교 전교

光復歡聲感動天(광복환성감동천) 連呼萬歲響無邊(연호만세향무변)
광복이 환성에 하늘도 감동했는데 연호하는 만세 소리는 끝없이 퍼졌네.

揭揚太極昇朝日(계양태극승조일) 重發權花降瑞烟(중발권화강서연)
태극기를 게양하니 아침해도 솟아오르고 무궁화도 두 번 피니 상서로운 인가 내리네.

混濁政情宜淨化(혼탁정정정정화) 素奢弊習復完全(문사폐습복완전)
혼탁한 정치정세는 마땅히 정화되어야 하며,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폐습은 완전히 복원되길 바라네.

文化暢達邦基固(문화창달방기고) 福祉成長永遠傳(복지성장영원전)
문화통화가暢달되고 나라의 기분이 굳어져서 복지사회 이룩하여 영원히 후세에게 전하리라.